

히틀러 손에서 예술품을 구해낸 영웅들

‘모뉴먼트 맨’

로버트 M. 에드셀, 브릿 워터 지음



미술학도였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중 수천 점의 미술품을 약탈했다. 지난 2010년 과거 미군 병사로 참전했던 한 미국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 캘러린츠 제13권’이라는 표제가 붙은 녹색 가죽 장정의 두꺼운 사진 앨범에는 히틀러가 각국에서 빼앗은 미술품들의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술학교 입시에 낙방했던 히틀러는 미술품 수집에 집착했고 심지어 연합군이 베를린 근처로 진격했을 때도 밤마다 간부들에게 미술에 대해 강연했다. 매년 성탄절과 생일에 히틀러는 나치가 약탈한 미술품 목록을 담은 앨범을 한 권씩 선물 받았다. 그가 받은 앨범은 총 31권이었는데, 그는 이 미술품들을 그의 고향 오스트리아 린츠에 세울 예정이었던 ‘제국 미술관’에 전시할 계획이었다.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미술품 약탈에 맞선 특수 부대가 있었다. 신간 ‘모뉴먼트 맨’(기념품 전담반·Monuments Men)은 히틀러의 손아귀에서 미술품을 되찾아오는 데 목숨을 건 영웅들의 이야기다. 저자들은 1990년대부터 유럽 전역을 발로 뛰며 기념품 전담반의 발자취를 추적해 책으로 정리했다.

이 기념품 전담반에는 13개국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1944년 6월부터 1945년 9월까지 활동했다. 책은 이들 가운데 케임브리지대학 역사학자 로널드 에드먼드 벨퍼가 소령, 조각가 워커



2차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가 약탈해간 미술품을 되찾은 연합군 병사들의 모습.

행록, 루브르박물관 자원봉사자 에즈 발랑 등 10여 명이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성(聖) 모자’ 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금 광산에 처박히는 수난을 겪었다. 히틀러는 벨기에에서 성모자 상을 빼앗아 오스트리아 알타우세 광산에 숨겨놓았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기념품 전담반의 활약 덕분이다. 이들은 광산에서 무사히 ‘성 모자’를 되찾아와 지금도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위용을 떨칠 수 있게 했다. 히틀러가 알타우세 광산에 은닉한 미술품 가운데 회화만 해도 1만6천87점에 달했다.

또 연합군이 독일 남부에서 발견한 약탈 미술품 보관소는 총 1000곳 이상이었는데, 여기에는 회화, 교회 종, 스테인드글라스, 종교 관련 물품, 필사본, 와인, 금, 다이아몬드, 곤충 표본 등이 가득했다. 가장 큰 보관소 중 하나는 독일과 오스트

리아 국경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었다. 이곳에서는 로트실트 가문의 보석 컬렉션, 세계적 수집가 피에르 다비트 바일의 소유였던 1000여 개의 세공품 등 압수 건수만 2만1000건이 넘었다.

이들 물건을 포장하고, 분류 목록을 작성한 뒤 원래 소유주가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는 데 6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들의 초창기 임무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지만 전선이 밀어지면서 갈망된 예술품의 행방을 찾는 쪽으로 변해갔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술품을 내줘야했던 피난민들의 일화, 적을 섬멸하기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일순간에 폭파한 사례 등을 통해 전쟁이 인류사에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도 꼬집는다.

〈프린틀·3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 옛 그림 속에서 멋을 발견하다

‘나를 세우는 옛그림’

손태호 지음



세상조차도 초월하려는 의지가 서린 비장함이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고 외치는 소리가 저형형한 눈빛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평했다.

그는 옛 그림을 역사적인 사건과 회화사의 맥락을 함께 살펴 인문학 덩어리로 보고 있다. 단순히 그림의 느낌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게 된 역사적 배경도 함께 들려준다.

이 밖에 ‘인왕제색도’ ‘월하정인’ 등 슬픔과 그리움을 화폭에 승화한 작품들도 흥미롭게 소개한다.

〈아트북스·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도전문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손태호씨는 30대 중반 옛 그림에 빠져 미술관, 고서화점을 등 곳을 찾아다녔다.

대학 때 문리학을 전공했지만 우리 문화의 매력을 탐구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미술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나를 세우는 옛그림’은 중년남자 손태호씨가 느낀 우리 그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뫼우도원도’ ‘윤두서 자화상’ ‘매천 환헌 초상’까지 조선의 그림 60여 점의 의미와 작품 창작 배경을 소개하고 저자가 발견한 옛 그림 속 멋을 기록했다.

‘윤두서 자화상’에 대해 저자는 “그림 속 비장함은

국가·민족·종교간 마찰로 사라진 건축물들

‘집단 기억의 파괴’

로버트 베번 지음



하는 장소나 건축물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건물들을 표적으로 한 테러와 정복활동을 소개하고, 사립 건물들 분산·결집시키기 위해 구조물을 세우거나 철거하는 행위 등을 추적한다. 과거의 잔해 위에 새

집사를 세우기 위해 파괴되는 건물들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도 경복궁, 경희궁, 경운궁 등 전국의 문화유산이 조직적으로 파괴되거나 해체됐다. 이는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자행된 만행이었다.

저자는 파괴에 대한 참상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마·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 바르샤바에 역사 기념물, 더블린 법원건물, 테러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거나 원형이 훼손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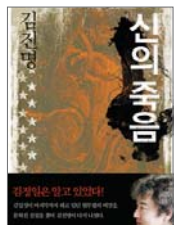
영국 건축잡지 편집인 출신인 로버트 베번의 ‘집단 기억의 파괴’는 국가나 민족, 종교간 마찰로 무너지거나 사라진 건축물을 소개한다. 정치, 종교 등의 문제로 건축에 가해진 탄압인 ‘문화청소’를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다.

탈레반이 1500년 역사를 가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을 폭파한 사건이나, 오스만 군대가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하면서 아르메니아 교회와 기념물 도시를 파괴한 사건 등 세계 역사에서는 한 집단을 상징

북한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

‘신의 죽음’

김진명 지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씨가 장편 ‘신의 죽음’을 냈다. 소설은 북한 지도자 죽음의 실체와 거기에 숨어 있는 진실을 추적한다. 버클리대 교수 김민서는 고미술품 감정사 살인사건에 휘말린 제자의 혐의를 벗기는 과정에 ‘현무집’이라는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된다.

소설은 김일성의 죽음과 동북공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녹여낸다. ‘현무집’의 비밀을 쫓던 주인공은 이 보물

의 소유자가 김일성이었음을 알게 되고, 김일성 죽음의 미스터리가 다가간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위협을 느낀 김일성이 미국의 주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하자 친중파였던 김정일이 그를 죽이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산업기지를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통합해 자기를 영역안으로 흡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새움·1만33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행은 숨어있는 열정을 깨워주는 것

‘인생을 바꾸는...’

채지형 지음



인기 여행작가 채지형씨가 여행이 가르쳐준 56가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인생을 바꾸는 여행의 힘’을 펴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세계일주를 다녀온 후 ‘지구별 여행자’ 등 다양한 책을 펴낸 채씨는 ‘같은 학교였고 여행은 공부였다’며 여행이 자신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전해준 삶의 지혜들을 풀어놓았다.

저자에게 여행은 ‘투자’이자 ‘공부’

‘비타민’이자 ‘발전’이고 ‘사랑’이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도,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영어 울렁증을 해소해주는 것도, 숨어있는 열정을 깨워주는 것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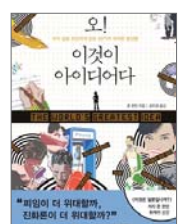
오래 여행으로 몸매 체득한 팁들은 ‘또 다른’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상상출판·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

‘오! 이것이 아이디어다’

존 판던 지음



이후 이와 관련한 사이트를 열었고, 네티즌들이 적극 참여해 50여가지의 순위를 매겼다.

‘우리 삶을 모던하게 만든 50가지 위대한 발상’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50가지 아이디어를 역순위로 보여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핵심을 짚은 설명들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반부적자 확대가 논란이 되면서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의 아이디어는 재평가를 받을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50위는 결혼. 반면 연애는 33위를 차지했다. 10위권 내에 진입한 아이디어는 문자, 음악, 진화론, 피임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무엇일까?

〈웅진지식하우스·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2010년 영국의 저명한 출판사 아이언북스 편집진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저술자 존 판던에게 ‘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달라’는 기획을 제안했고, 존 판던은 책 ‘오! 이것이 아이디어다’를 통해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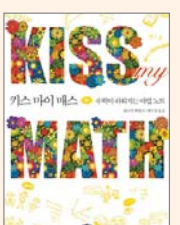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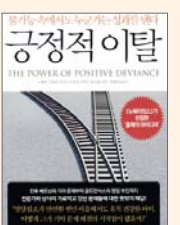
존 판던은 과학, 철학, 인문학을 대표하는 우리 시대의 지성인 11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렸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과 제도부터 양자이론, 진화론 같은 과학이론, 커피, 하수도와 같은 생활양식까지 모두 5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신간

▲조선의 탐사기행=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음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아동문학가 김정호씨가 방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탐사기행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버무려냈다. 조선 사람들의 유별난 쇠고기 사랑, 명나라 황제도 감탄한 조선 두부의 맛, 조선시대 최고의 탐사가 허균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두부 찌는 모양 등 책에 수록된 다채로운 풍속화가 보는 재미,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따바·1만5000원〉

▲기억을 공유하라! 스포츠 한국사=지난 1940년대부터 2011년까지 시대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생활상을 반영한 한국 스포츠의 역사적인 50장면을 살펴봤다. 시대의 이단아였던 흥수환, 세계 최고의 리그를 평정한 차범근, 팔 뺀지껏 공을 던졌던 최동원, 온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줬던 박세리와 박찬호, 2002년 한일월드컵의 4강 신화 등이 소개됐다. 또 한국 동계스포츠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김연아의 금빛 스토리까지 국민을 울고 웃었던 스포츠 스타들의 역사가 담겼다. 〈이콘·1만5000원〉

▲긍정적 이탈=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활동가였던 저자들이 ‘긍정적 이탈’ 원리를 적용해 식량난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특정 집단의 문제를 풀려면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 할례 같은 인권 문제



터 브라질 갯벌의 범람 같은 환경 문제까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했다. 〈RHK·1만3800원〉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미국 출신 기자이자 작가인 윌리엄 클라인크래프트는 이 책을 통해 레이건의 정책이 미국 역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간 레이건은 실제로는 서민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을 폈지만 이러한 뒷배기가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 저자는 레이건이 만든 각종 정책은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의 고임금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출판사·1만9800원〉

▲톨스토이와 행복한 하루=삶의 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잠언을 톨스토이가 엮은 것. 톨스토이는 20년 동안 세계의 속담, 격언, 금언에 덧붙여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동서양의 종교 경전,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책을 다시 읽고 주옥 같은 구절을 뽑았다. 독자들이 매일 읽고 생각하기 위한 읽을거리를 만든 것이다. 〈에디터·1만3800원〉

▲키스 마이 매스=이야기로 풀어주는 수학 학습서. 정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함수까지 다양한 수학 개념을 일상 속 친근한 이야기와 함께 설명한다. 여러 권의 수학 관련 책을 펴낸 대니카 맥컬러는 1990년 미국 TV ‘케빈은 열두 살’의 여자 주인공. 어려운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팁을 알려주며 문제를 함께 풀어 본다. 〈민음인·1만6000원〉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시장=시골벽적인 시장만큼 흥미롭고 다채로운 시장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그린 정보그림책이다. 신라, 고려, 조선, 현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시장의 발달사와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전반에서 다루는 경제, 문화, 역사를 시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이세움·9500원〉



▲거꾸로 동물원=따라가기 좋아하는 동물들이 모여사는 특별한 동물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영국의 ‘스마트 금메달’을 수상한 사라 다이아가 쓰고 그렸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박쥐, 풍덩풍덩 다이빙을 잘하는 펭귄, 정답게 털을 골라주는 고릴라,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여유를 부리는 사자 등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푸른숲 주니어·1만원〉

▲공자아저씨네 뺑가게=주니어김영사가 새롭게 펴내기 시작한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시리즈 첫번째 권이다. 철학, 문학, 예술 등 인문학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들이 어린이들의 이웃으로 등장,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책으로 이번 책에서는 공자가 뺑가게 아저씨로 등장,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주인공 환희와 이야기를 나눈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아빠는 슈퍼맨 나는 슈퍼보이=명수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아빠가 어떤 때는 장피한다. 자동차 홍보를 위해 꼴꼴이 바지를 입는 슈퍼맨 복

장을 하는 게 민망하고 자신과 함께 참가한 회사 캠프에서 자신은 뒷진행해 고백에게 달려가는 아빠가 밍기만 하다. 명수는 과연 아빠와 화해할 수 있을까. 〈시공주니어·9000원〉

▲우리 자연유산 이야기=자연 유산 중에서 귀중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쓴 책이다. 창덕궁 향나무, 진돗개, 비단벌레, 독도 천연보호 구역, 반달가슴곰, 정이품송 등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북한·독일·일본의 천연기념물도 소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창비·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